

수해복구 지원에 警友들 팔 걷고 나서

- 중앙회, 성금 500만원 MBC에 기탁 -

서울양천 경우회, 강원도 평창서 유실 제방 복구에 땀흘려

재향경우회가 수재민들의 아픔 보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경우회 중앙회는 전국을 강타한 장마철 폭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위해 지난 7월 24일 구흥일 경우회장 명의의 성금 500만원을 MBC 문화방송에 기탁하고 조속한 복구를 기원했다.

아울러 강원경우회도 지난 7월 31일 최인철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강원일보사를 방문하고 성금 1백만원을 전달했고, 대구 경우회도 김찬승 회장이 대구 KBS 방송총국에 성

금 30만원을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서울양천 경우회는 지난 7월 28일 이기종 회장을 비롯한 회원 45명이 수해 복구지원을 위해 양천구청의 후원을 받아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방림 4리 소재 평창강 유실 제방 복구에 나서으며, 부산 부산진 경우회도 경남 진주시 문산면 소재 피해 현장에서 침수 복구 및 방역활동에 나서는 등 수재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있고, 이들의 아픔을 보듬는 전국 警友들의 온정이 쏟아지고 있다.



비를 맞으며 삽질을 하고 있는 서울 양천警友들.

한편 이번 수해 복구에 나선 한 警友는 『우리 조직이 봉사단체로서의 정체성에 걸맞게 수재민 돕기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지속적인 봉사활동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警友바둑대회 개최

- 9월 6일 市·道 대항 총 16개팀 실력 겨뤄 -



사진은 지난 1월 가졌던 기우회 발기인 대회 모습.

경우회가 오는 9월 6일 중앙 인 모임인 기우회(회장 이두선 회) 사랑방에서 傘下 바둑 동호 前 황성서장)와 합동으로 전국

警友바둑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우회 조직활성화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바둑 동호인들의 친목도모 및 기력향상을 위해 지난 93년 이후 모처럼 개최되며 각 시도별 1개팀(3명으로 구성), 총 16개팀(48명의 선수들로 구성)이 단체전으로 경합을 벌이게 된다. 경기방법은 중앙회가 공정한 추천으로 선정한 토너먼트 방식

식의 단판승으로 진행되는데, 1국당 50분(결승전은 1시간)으로 하되, 시간 초과시는 당시 판세를 평가하여 심판관이 승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결과에 따른 시상은 단체전 1위에게 우승기(지난 93년 우승팀인 강원경우회에서 보유)와 트로피 및 시상금 50만원, 2위·3위·4위에 각각 트로피 및 시상금 40만원·30만원·20만원씩을 수여하고 참가자 전원에게도 기념품을 증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회결과 성적 우수 선수에게는 한국기원과 협의하여 공인 단·급증을 수여할 예정이다.

알기쉬운 법률상식

전세를 들었을 때 전세든 건물(목적물)이 매매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전세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新 소유자 사이에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한다. 전세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 그 건물의 新 소유자는 전세금 반환의무를 가진다. 전세권은 그 목적물의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신 소유자도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전세금은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지 않아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판결요지】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

「전세보증금」관계

— 김 진 (경우회 재정관리처장)

유권이 이전된 경우 민법이 전세권 관계로부터 생기는 상환청구, 소멸청구, 갹신청구, 전세금 증감청구, 원상회복, 매수청구 등의 법률관계의 당사자로 규

이므로,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목적물의 신 소유자는 구 소유자와 전세권자 사이에 성립한 전세권의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어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2006. 5. 11 선고 2006다6072 대법원 판결(전세보증금)

이준범 동신대 총장의 명예로운 퇴임

4년 在任中 학교 및 지역발전에 牽引車 역할



제 15대 경우회장을 역임했던 이준범 동신대 총장이 지난 7월 14일 4년 동안 재임해 왔던 동신대학교 총장직을 명예롭게 퇴임했다.

이준범 총장은 이임식에서 동신대학교 이사장으로부터 감사패와 나누시 명예시민증을 받는 한편 대학발전의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총장으로 선임되는 영광도 안았다. 이 총장은 지난 2002년부터 금년 6월까지 4년간 동신대 총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교육인적자원부 부처 누리사업 중·대형 과제 중심대학에 선정된 것은 물론 과학기술부 지역혁신연구센터 및 정보통신부 디지털 협동연구센터 선정, 산업자원부 나주배 활성화 시범사업 선정 등 수많은 업적을 남겼다. 이날 이 총장은 『30여년 경찰관 생활을 마무리 하고 대학의 총장으로 지내

면서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느껴 왔으며, 무엇보다 대학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늘 고민했다』면서 『퇴임한 이후에도 제2의 고향 나누시와 동신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서울 종로경찰서장, 전남·경남경찰국장, 경찰대학장을 마지막으로 경찰에서 물러났고, 감사원 감사위원,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전남도지사, 재향경우회장, 광주·전남 지역 대학총장협의회장, 광주·전남 공동혁신 도시건설추진협의회 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현직 시절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

업체 탐방

世界化 時代に 새롭게 도약하는 「K 여행사」

— 警友會와 업무 제휴, 最小價格으로 서비스 제공 —



「최저 요금으로 봉사, 고객별 맞춤 서비스, 친절하고 신속한 처리」를 3대 서비스 목표로 설정하고 새롭게 도약하고 있는 「K 여행사」를 찾아 보았다. 서울 중구 서소문동에 위치한 「K여행사」는 델타항공의 子會社로 전국에 14개 대리점을 두고 국제선 및 국내선 항공권 발매, 각종 여행상품 판매(해의호텔 및 렌터카 예약, 패키지 투어, 하늬문 및 배낭여행, 성지순례 등), 여권 및 각종 사증 발급 수속 대행, 여행자 보험상품 판매 업무를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곳 「K여행사」는 海外 주재관 경험 이 풍부하고, 경찰대학장과 오만 大使, 그리고 재향경우회장을 역임했던 유내형 사장이 현직시절의 외국 근무경험과 고객마인드를 바탕으로 설립한 회사로 여행사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최상의 여정과 최저의 운임」을 第一 목표로 삼고 있다. 이와관련 「K여행사」는 대한항공, 유

나이티드항공,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알로하 항공의 항공권을 直販하는 한편 發券 담당직원이 각 항공사의 最新 運賃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정확한 요금을 안내하고, 예약상황을 알기 쉽게 편집하여 고객들에게 이메일로 보내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한편 「K여행사」는 효율적인 여행을 위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예약」에도 비중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각 고객사나 해외여행 규정을 자체 판매망에 입력하여 예약 접수시 규정 적합 여부를 확인해 주는 한편 고객들의 여행정보(여권만료일, 비자유무 등)를 등록해 둬으로서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정보의 재입력을 피하여 처리시간을 단축함과 아울러 개인의 여건과 취향에 맞는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우수한 예약시스템을 바탕으로 최신 정보에 기초한 정확한 스케줄과 요금정보를 제공하고, 전 세계 대다수 지도가 입력된 社內 소프트 웨어를 이용해 고객이 원하는 위치의 호텔로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K여행사」는 「신속한 확인」차원에서 문의한 여정에 대해서는 전세계 47,000여개 호텔과 37개 렌터카 업체와 연계된 조회시스템을 바탕으로 즉시 조회 및 할인요금으로 예약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여행사」의 또 하나의 장점은 「서비스 품질관리」라고 하는 점이다. 이것은 고객에게 항공권을 전달하기 전 최소한 3회 이상 세부사항을 반복 확인하는 한편 예약후 24시간 이내에 재검점, 發券時 다시 확인, 예약변경시 전 과정 반복실시 등으로 착오를 없애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고객 중심의 마인드에 힘입어 「K여행사」는 지난 98년 8월 법인 설립 이후 델타항공과 대한항공 항공권의 주한 미군연내 판매대행을 시작으로, 99년에는 同伴에 대한 영의 판매를 대행하게 되었고, 2000년에는 국내고객 서비스 확대를 통해 항공권 판매액 유수업체로 성장했다. 한편 「K여행사」는 조만간 警友會와도 상호 업무제휴를 맺고 警友회원들에게 최대한 특별가액으로 각종 여행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K여행사」가 기획한 상품이 아니라도 警友들이 「K여행사」를 통해서 이용하면 기존의 가격보다도 더 저렴하게 주선해 줄 방침이다. (상당 전화 ☎ 02-779-3413)

愛國하는 마음으로

「北核, 미사일 도발 규탄 8·15 국민대회」에 적극 참여 합시다!

우리사회는 희망과 기대보다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사태로 인한 안보위기가 전쟁의 위험과 경제 불황을 가져오고 한·미 무역자유화 협상(FTA)과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보수·진보 간 갈등 등 국내의 정세가 사회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민족공조와 진보를 앞세운 분별없는 친북좌경세력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을 반민족·반통일 분자로 매도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우리의 혈맹인 우방국가보다 북한을 더 우호적으로 보는 현실을 좌시할 수 없어 나라의安危를 걱정하는 안보단체와 국민들이 굳게 뭉쳐 국가의 안보를 되새겨 보게 하고, 철부지 민족주의자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한 국민대회를 갖기로 하였사오니 가족과 이웃이 함께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 일 시 : 2006. 8. 14(월) 오후 2시~6시
※ 오후 1시 30분까지 대회장 단상 앞 집결
- 장 소 : 종묘공원 (종로3가와 종로4가 중간위치)
- 주 최 : 반핵 반침 국민협의회

※ 교통편 ◎ 지하철 1호선, 3호선, 5호선 종로3가역 ⑪번 출구
◎ 버스 1000, 9301, 100, 103, 140, 143, 150, 160, 161, 201, 260, 262, 270, 271, 273, 370, 601, 720, 721, 0212번 종로4가 정류장 하차

• 현장 약도



2006년 8월 4일

대한민국재향경우회